

대학생의 미용성형수술 수용성 영향요인

Factors Affecting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김영아*, 채덕희**, 김현례***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Young A Kim(yakim@jejunu.ac.kr)*, Duckhee Chae(dheechae@jnu.ac.kr)**,
Hyunlye Kim(hlkim5207@chosun.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용성형수술 경험, 부작용에 관한 인식, 자아존중감, 미용성형수술 수용성(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ACS)을 조사하고 ACS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편의 표집한 3개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19세 이상의 대학생 255명이다. 자기기입 방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6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 중 11.4%가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 경험이 있었고, 안검미용성형수술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총 86.3%의 학생들이 미용성형의 부작용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었고, 주요 정보원은 TV·신문·잡지, 인터넷이었다. ACS는 성별, 학년, 미용성형수술 경험, 부작용 정보 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ACS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ACS의 영향요인은 성별, 학년, 미용성형수술 경험, 자아존중감이었고, 회귀모형의 총 설명력은 19.0%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이 미용성형수술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습득, 자아존중감 향상과 학년과 성별을 고려한 중재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미용성형수술 | 부작용 | 인식 | 태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cosmetic surgery experience, perception of side effects, self-esteem,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ACS) and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AC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 convenience sample of 255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complet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May, 25, 2016 to May, 31, 2016.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s a results, 11.5% of students had at least one cosmetic surgery and the majority of them had blepharoplasty. A total of 86.3% of students had heard of cosmetic surgery side effects and the most common source of information were TV, newspapers, magazines and internet. AC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gender, school year, perception of side effects, and cosmetic surgery experience. ACS and self-esteem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Previous experience of cosmetic surgery, self-esteem, school year, and gender were identified as influencing factors on ACS which explained 19.0% of total variance. In conclusion, to help college students make rational decisions on cosmetic surgery, provision of sufficient information,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introduction of gender and school year based intervention are recommended.

■ keyword : | Cosmetic Surgery | Side Effect | Perception | Attitude |

* 이 논문은 2016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11월 21일

수정일자 : 2016년 12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18일

교신저자 : 김현례, e-mail : hlkim5207@chosu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미용성형에 대한 접근성 증가로 인해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나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성형수술에 관해 접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으며, 성형수술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시각도 점차 약화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미용성형수술 및 시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국가로 보고된 바 있으며, '한류 열풍'과 '의료 관광'의 성행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2].

오늘날 성형수술은 아름다운 몸이라는 가치와 완성을 손쉽게 해결해주는 해법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으며, 수술의 성공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되었다[3]. 그러나 몸의 크기와 형태를 바꾸려는 이러한 시도에는 외과적 처치에 따른 신체적 부작용의 위험이 수반된다[4][5]. 또한 외모에 대한 집착, 신체상 문제, 행위중독과 같이 극단적이고 과도한 형태로 나타나 개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6]. 즉, 미용성형수술에 따른 수술 부위 비대칭, 흉터, 피부 예민화, 피부 변색, 보형물 이동, 근 기능 이상 및 저하, 각화, 부종, 비립종, 진물, 굴곡 등의 부작용과 의도하지 않은 재수술 및 불안을 경험하거나 미용성형 중독의 위험이 있다[7-9].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6]. 대학생은 향후 독립적인 성인의 신체·심리적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습관이 정착되는데 관건이 되는 시기에 있으므로, 미용성형수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이들의 미용성형수술 현황,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용성형수술의 경험이나 실태, 성형수술 욕구, 성형수술의 내용 및 부작용에 대한 인식, 성형수술 수용성, 성형 중독 성향에 관한 서술적 조사연구들[9-13]이 이루어졌다. 또한 성형수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들[14-17]이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나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미용성형수술이 건강보험제도 밖에서 수행되고 있어 미용성형수술의 현황, 부작용 및 합병증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8].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미용성형 관련 상담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성형수술 관련 의료 소비자 피해가 연 100건 이상으로 이 중 부작용 피해가 절반 이상이였다[18]. 이에 부작용을 포함한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정확한 정보 인식과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미용성형수술의 결정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해야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된 미용성형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관련 경험, 개인내적 상태,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포함된다. 김과 정[9]은 성형수술 경험, 신체상, 수용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여대생의 성형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신체상, 자아존중감, 부모의 태도, 사회문화적 메시지의 내재화, 물질주의 등이 미용성형수술의 욕구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13]. 이 중 개인내적 상태로서 자아존중감은 신체상에 비해 이전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고, 자아정체감 정립의 발달과업이 중요한 대학생 시기에 더욱 의미 있는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미용성형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미용성형을 주로 고민하고 시작하게 되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수술의 경험과 수용성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 남녀 대학생들의 미용성형수술의 경험, 부작용에 관한 인식, 수용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관련요인들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의사결정에 앞서 필요한 고려사항으로서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미용성형수술 시행과 신체·심리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수술 경

험, 부작용에 관한 인식, 수용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미용성형수술 경험 및 부작용에 관한 인식, 자아존중감,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다섯째, 미용성형수술 경험, 부작용에 관한 인식, 수용성에 대한 남녀차이를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2016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졌다. 편의 표집한 2개 시, 3개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19세 이상 남녀 대학생 중 연구 목적을 듣고 자발적인 참여를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19] 예상 독립변인 10개,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설정했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72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6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부적절한 8부를 제외한 총 255부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3. 연구도구

3.1 미용성형수술 수용성

성형수술에 대한 수용성 척도(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는 Henderson-King과 Henderson-King[22]이 개발하고, 김은재[23]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3가지 하위요인(개인내적 이유, 사회적 이유,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정도)으로 구성된 15개 문항, 7점 평점 척도(1=전혀 동의 안함~7=항상 동의함)의 도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형수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김은재[23]의 연구에서 개인내적 이유 .88, 사회적 이유 .90, 수술 고려 정도 .71, 전체 문항에서 .94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내적 이유 .80, 사회적 이유 .89, 수술 고려 정도 .89, 전체 문항에서 .93이었다.

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도구(Self-Esteem Scale, SES)는 Rosenberg[20]가 개발하고 전병재[21]가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 4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Rosenberg[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 전병재[21]의 연구에서 .85,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3.3 일반적 특성 및 미용성형수술 관련사항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년, 가족과 동거상태, 가정의 경제상태, 미용성형수술 경험, 부작용 정보 인식에 대한 총 7문항을 통해 조사되었다. 성형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미용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하였고, '예'로 대답한 경우에는 정보를 얻은 경로에 대해 추가 질문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PC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미용성형수술 경험, 부작용에 관한 인식, 자아존중감,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형수술 관련사항에 따른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미용성형수술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IRB-2016-016). 사전에 담당과목 교수에게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학교 성적과의 무관함을 강조하였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연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대상자는 설문지를 받기 전에 연구 목적과 절차, 연구대상의 익명성과 비밀 유지, 연구 참여로 인한 위험성 및 불편함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고, 일정한 연구 기간이 지난 후 폐기될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고지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서술적 통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21.13세로 성별 분포는 남학생 104명(40.8%), 여학생 151명(59.2%)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50명, 2학년이 70명, 3학년이 83명, 4학년이 51명이었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동거 175명, 하숙/자취 36명, 기숙사가 43명이었고, 가정의 경제상태는 ‘상’ 19명, ‘중’ 208명, ‘하’ 26명이었다 [표 1].

성형수술 관련사항으로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9명(11.5%)으로 최초로 미용성형을 받은 나이는 16세(1명), 17세(1명), 18세(2명), 19세(9명), 20세(8명), 21세(2명), 22세(3명), 25세(1명)이었다. 경험한 미용성형수술의 종류로는 안검미용성형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레이저제모, 코 용비술, 보톡스, 레이저박피, 히알루론산 필러, IPL, 기계박피 순으로 조사되었다. 미용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정보 여부는 ‘예’ 220명,

‘아니오’ 35명이었고,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로는 ‘TV나 신문, 잡지’가 125명, ‘인터넷’ 120명, ‘친구나 가족’ 19명, ‘의사’가 4명이었다[표 1].

주요 변인인 자아존중감은 평균 30.82(SD=4.43), 범위 20-40이었고,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은 평균 57.39(SD=18.21), 범위 15-104로 나타났다[표 1].

표 1. 서술적 통계

변수	남(n=104)	여(n=151)	전체 (N=255)
	n(%), M(SD)	n(%), M(SD)	
나이	21.84(2.05)	20.64(2.03)	21.13(2.12)
학년*			
1학년	14(5.5)	36(14.2)	50(19.7)
2학년	37(14.5)	33(13.0)	70(27.5)
3학년	36(14.2)	47(18.5)	83(32.7)
4학년	17(6.7)	34(13.4)	51(20.1)
거주형태*			
가족과 동거	72(28.3)	103(40.6)	175(68.9)
하숙/자취	18(7.1)	18(7.1)	36(14.2)
기숙사	13(5.1)	30(11.8)	43(16.9)
경제상태*			
상	10(4.0)	9(3.6)	19(7.5)
중	76(30.0)	132(52.2)	208(82.2)
하	17(6.7)	9(3.6)	26(10.3)
성형수술경험*			
예	5(2.0)	24(9.5)	29(11.5)
아니오	97(38.5)	126(50.0)	223(88.5)
부작용정보			
예	81(31.8)	139(94.5)	220(86.3)
아니오	23(9.0)	12(4.7)	35(13.7)
주요정보출처†			
TV/신문/잡지	55(20.5)	70(26.1)	125(49.0)
인터넷	32(12.0)	88(32.9)	120(47.1)
친구/가족	4(1.5)	15(5.6)	19(7.4)
의사	2(0.7)	2(0.7)	4(1.5)
자아존중감	31.59(4.80)	30.29(4.08)	30.82(4.43)
ACS	52.27(16.78)	60.89(18.38)	57.39(18.21)

*무응답 포함, †복수 응답 허용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ACS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은 성별 ($t=-3.80, p<.001$), 학년($F=2.68, p=.048$), 미용성형수술 경험($t=5.56, p<.001$), 부작용 정보 인식($t=2.37, p=.01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t-검정을 통한 차이 분석에서 여성, 부작용 정보를 인식한 경우, 미용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ACS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3학년이 1, 2, 4학년보다 또는 2, 3, 4학년이 1학년보다 ACS가 높았다 [표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ACS의 프로파일도표는 [그림 1]과 같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ACS 차이

변수	ACS	t or F	p duncan
	M(SD)		
성별			
남	52.27(16.78)	-3.80	.001
여	60.89(18.38)		
학년*			
1학년	53.46(16.94)	2.68	.048 a,b,d(c a(b,c,d)
2학년	54.26(19.87)		
3학년	60.67(17.17)		
4학년	59.67(17.69)		
거주형태*			
가족과 동거	57.18(19.05)	0.21	.812
하숙/자취	59.03(18.01)		
기숙사	56.44(14.82)		
경제상태*			
상	49.84(20.53)	2.17	.116
중	58.35(18.21)		
하	54.88(15.57)		
성형수술경험*			
예	73.68(15.35)	5.56	.001
아니오	55.43(17.54)		
부작용정보			
예	58.47(18.27)	2.37	.019
아니오	50.69(1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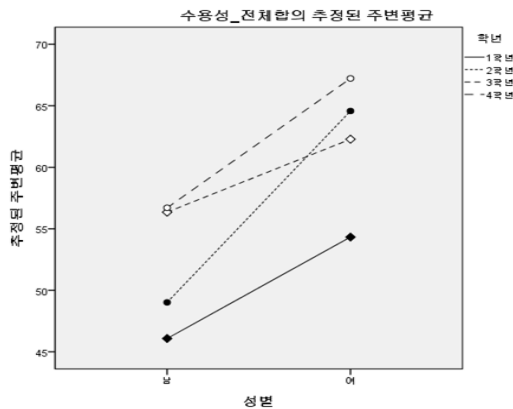


그림 1. 프로파일 도표

3. 자아존중감과 ACS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ACS는 음의 상관관계($r=-.27, p<.001$)를 보였다.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여학생에서만 두 변인 간의 음의 상관관계($r=-.29, p<.001$)가 확인되었고, 남학생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r=-.18, p=.070$)[표 3].

표 3. 자아존중감과 ACS 간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ACS
		r(p)	r(p)
전체	자아존중감	1	
	ACS	-.27(<.001)	1
남	자아존중감	1	
	ACS	-.18(.070)	1
여	자아존중감	1	
	ACS	-.29(<.001)	1

4. AC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들의 ACS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일변량분석의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변인들(성별, 학년, 경제상태, 미용성형수술 경험, 부작용 정보 인식)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ACS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인 중 범주형 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공차한계는 .481-.932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는 1.72-2.08로 10을 넘지 않았으며, 상태지수가 1.00-27.19로 3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 watson 값이 1.721로 2에 가까워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었다.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7.58, p<.001$),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은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경우($\beta =.268, p<.001$)였고, 자아존중감($\beta=-.225, p<.001$), 3학년($\beta=.194, p=.013$; 기준집단=1학년), 여학생($\beta=.133, p=.031$)이 뒤를 이었다. 이들 변수들은 대상자의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을 19.0% 설명하였다[표 4].

표 4. AC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SE	β	t(p)
(절편)	69.95	9.72		7.20(<.001)
성별: 남*				
여	4.92	2.28	.133	2.16(.031)
학년: 1학년*				
2학년	2.77	3.11	.068	0.89(.375)
3학년	7.52	3.02	.194	2.49(.013)
4학년	4.86	3.43	.107	1.42(.158)
경제상태: 상*				
중	5.66	3.85	.120	1.47(.143)
하	3.96	4.99	.065	0.79(.428)
성형경험: 아니오*				
예	15.55	3.41	.268	4.57(<.001)
부작용정보: 아니오*				
예	2.72	3.20	.052	0.85(.397)

자아존중감	-0.93	0.24	-.225	-3.83(<.001)
F=7.58, p<.001, R ² =.219, Adjusted R ² =.190				

*기준집단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수술의 경험, 부작용에 관한 인식, 수용성의 정도와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미용성형수술 경험과 부작용에 관한 인식, 주요변인 특성(자아존중감, ACS)에 대해 살펴보고, 미용성형수술의 수용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년별 분포가 고른 20대 초반의 남녀 대학생이었다. 이들의 성형수술 경험 비율은 전체 11.5%(29명)로 남학생(2.0%, 5명)보다 여학생이 더 많았다(9.5%, 24명). 이 수치는 남학생 중 4.8%(104명 중 5명), 여학생 중 15.9%(151명 중 24명)에 해당된다. 대학생의 미용성형수술 현황에 대한 선행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심층면접조사를 포함한 2003년 보건복지부 보고서[24]에서 여대생의 52.5%, 이메일 조사방법을 통한 연구[9]에서 여대생의 45.7%, 직접 방문에 의한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한 학위논문[25]에서 대학생의 6.5%, 여자 대학생의 27.7%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미용성형수술 경험 비율은 조사방법에 따라 수치의 편차가 크고, 본 연구에서의 결과 수치는 조사방법이 동일한 경우와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연구자의 직접 방문에 의해 주로 대학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즉, 이러한 상황은 본인의 응답이 주변에 있는 교수나 학급 동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 미용성형수술 경험 유무는 다른 변인들과 다르게 무응답 건수가 3건으로 더 많이 보고되어, 참여자들이 응답을 꺼리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상황에 따라 미용성형수술 여부에 대한 응답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조사를 시행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의 솔직하고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

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받은 미용성형수술의 종류는 안검미용수술이었다. 미용성형수술은 질병 및 치료 목적의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그 건수나 종류에 관한 정확한 국내 통계자료를 얻기 어렵다[2]. 그러나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미용성형수술은 안검미용수술(쌍꺼풀 수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24]. 400명의 국내 남녀 대학생 대상으로 한 일 연구[25]에서도 미용성형수술의 시술부위가 눈인 경우가 가장 많아(눈 71.5%, 코 15.3%)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용성형수술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습득한 경우는 86.3%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출처는 주로 각종 매체(TV·신문·잡지)와 인터넷이었고, 전문가인 경우는 1.5%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수술은 다양한 신체·심리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그 부작용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드물다. 국내 20-30대 여성의 미용성형 부작용 경험에 관한 일 질적 연구에 의하면[17], 미용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하는 여성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사회적 갈등에 부딪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들의 경험 중 ‘계획된 선택’과 ‘우연한 선택’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어, 이전에 미용성형수술을 선택한 과정이 부작용 경험과 관련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그로 인한 이점과 위험성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고, 가능한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이다. 향후 미용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 및 정보획득 방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미용성형수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총점 평균은 남학생 31.59점, 여학생 30.29점, 전체 30.82점이었고, 문항별 평균은 남학생 3.16점, 여학생 3.03점, 전체 3.08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여고생의 총점 평균 25.09점, 간호대학생의 문항평균 2.65점보다 높았고[26],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문항평균 남학생 3.79점, 여학생 3.5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

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계열 학과의 대학생들이 고루 포함된 본 연구대상자와 보건 계열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특성은 서로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아닌 자아존중감에 대해 깊게 고찰하지 못하였으나, 이와 같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큰 차이를 보이는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변인인 미용성형수술 수용성(ACS)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태도로서 개인의 성형수술에 대한 적합성이나 만족도보다 신체적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형수술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한다[22]. 본 연구에서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총점 평균은 남학생 52.27점, 여학생 60.89점, 전체 57.39점이었고, 문항별 평균은 남학생 3.48점, 여학생 4.05점, 전체 3.83점으로 산출되었다.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측정에 사용한 도구가 7점 평점척도(1=전혀 동의 안함, 7=항상 동의함)인 점을 감안하면, 연구 참여자들의 ACS 문항평균값은 외형적 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미용성형수술을 수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쪽에 가까운 태도를 시사한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비교해보면, 2013년 국내 만 18~29세의 성인 514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김은자[23]의 연구에서의 총점 평균 57.23점, 국내 여대생 223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9]에서의 문항별 평균이 3.50~5.26점의 수치와 유사한 반면,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해외연구[10]에서 문항별 평균 2.09~3.66점에 비해서는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조현우[25]의 연구에 의하면,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49.3%로 부정적인 태도인 경우 14.7%보다 높았고, 향후 성형수술 계획이 있는 경우는 17.8%, 성형수술의 목적은 자기만족이 8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국내 일반 대학생들이 미용성형수술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성형수술의 목적으로 외부적 요인보다 스스로의 만족을 중요하게 지각하지만, 본인에게 미용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외적인 변화를 위해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차이분석 및 상관분석 방법을 통한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관련요인은 성별, 학년, 미용성형수술 경험, 부작용 정보 인식, 자아존중감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성별과 학년에 따른 ACS의 프로파일 도표에서 여학생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ACS의 점수가 높은 것을 가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면접과 같이 외모가 취업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미용성형수술 경험이 있고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 ACS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함에 따라 비롯되는 결과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ACS가 높아지는 결과는 미용성형수술의 태도와 심리적 요인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뒷받침한다. 이혜경[13]의 연구에서는 여자 고등학생의 성형수술 욕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상과 양의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 이상적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은자[23]의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 외모 거부에 대한 민감성, 신체상(신체변형)에 대한 걱정이 ACS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과 외모 관련요인이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에 의한 ACS의 주요 영향요인은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경우($\beta=.268$), 자아존중감($\beta=-.225$), 3학년($\beta=.194$, 기준집단=1학년), 여학생($\beta=.133$)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 중 회귀계수값이 가장 큰 요인은 이전의 미용성형수술 경험으로 성형수술 경험이 있을 때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이 높을 때 미용성형수술을 결정할 확률도 높아지는 반대의 방향성도 가능하므로, 변수간의 관계에 관한 해석에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과 학년에 관한 결과는 앞서 논의에서와 같이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9][13].

흥미로운 점은 미용성형수술의 경험이나 태도에서 나타난 성별차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미용성형수술 경험이 많았고, ACS의 점수가 높았으며, 여학생 그룹에서만 ACS와 자아존중감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여성이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이 높고, 심리적 기제와의 관련성이 보다 강할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성별 차이는 여러 선행연구들[9][25]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관 등[28]은 여학생이 더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모로 인한 차별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최근에는 취업을 앞둔 남자들에게도 이러한 특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미용성형수술의 인식, 행태, 태도 등에서 성별차이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과 이를 고려한 중재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미용성형수술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특성에 대해 추가로 고찰해 볼 수 있다. 남자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Q 방법을 적용하여 남자대학생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주관성에 대해 탐색한 정연선[29]의 연구는 이들이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지각하는 구조적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심사숙고형, 고전적 사고형, 미용성형탐닉형의 3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심사숙고형으로 미용성형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의료인에 의한 전문지식과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세심히 확인한 후 수술을 결정하는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의사결정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로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고전적 사고형이나 주관적 외모에 대한 만족이 매우 낮은 미용성형 탐닉형보다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적절한 의사결정은 부정적인 심리기제나 환경 요소에 의한 영향을 받거나[10][13] 심리사회적 고통[17]과 성형중독 경향의 위험[9]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정보를 구할 때 전문가의 도움보다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낮은 자존감이 ACS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대학생들이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올바른 인

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국내·외의 학술적 보고가 미미한 가운데, 이들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와 부작용에 관한 인식을 다룬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편의추출 표집방법에 따른 일반화의 어려움,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에 관한 포괄적인 영향요인을 다루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 인식하고, 미용성형수술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향상을 위한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영향요인으로 성별, 학년, 미용성형수술 경험, 자아존중감이 규명되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 경험과 수용성, 자아존중감과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에서 남녀 차이를 확인하였다. 향후 대학생의 미용성형수술의 행태와 태도에 관한 기초자료의 양적 증가, 성별차이에 관한 심층 분석, 올바른 의사결정 모델과 그 방안에 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 Global Statistics* [Internet], Hanover NH: ISAPS, 2011. [cited 2015 Oct 1]. Available from: <http://www.isaps.org/news/isaps-global-statistics>
-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미용성형수술의 이용자 정보집*, 저자, 2013a.
- [3] 최철웅, “성형 공화국, 전쟁터가 된 몸들,” *문화과학*, 제69권, pp.197-205, 2012.
- [4] C. Shilling, *The Body and Social Theory [2nd ed.]*, Sage Publications, 2003.
- [5] M. A. Lusted, *Cosmetic Surgery*, Edina, Minn: ABDO Publications, 2010.

- [6] 손은정, “여대생의 성형수술 경험 및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6권, 제1호, pp.23-42, 2011.
- [7] 우경자, *여성의 외모주의와 성형의료산업*,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미용성형시술의 현황 파악과 이용자 정보집 개발*, 저자, 2013b.
- [9] 김영아, 정향인, “여대생의 미용성형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2호, pp.621-631, 2014.
- [10] D. Henderson-King and K. D. Brooks, “Materialism, Sociocultural Appearance Messages, and Paternal Attitudes Predict College Women’s Attitudes About Cosmetic Surge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33, No.1, pp.133-142, 2009.
- [11] C. N. Markey and P. M. Markey, “A 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Examination of Reality Television Viewing and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Body Image*, Vol.7, No.2, pp.165-171, 2010.
- [12] 최미혜, 김주덕, “연령별로 본 여성의 미의식 및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지도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13권, 제2호, pp.547-566, 2007.
- [13] 이혜경, “여자고등학생의 성형수술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26-136, 2011.
- [14] D. D. Andrade, “On Norms and Bodies: Findings from Field Research on Cosmetic Surgery in Rio de Janeiro,” *Brazil. Reproductive Health Matters*, Vol.18, No.35, pp.74-83, 2010.
- [15] T. N. Boulton and C. Malacrida, “Women and Cosmetic Breast Surgery: Weighing the Medical, Social, and Lifestyle Risk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22, No.4, pp.511-523, 2015.
- [16] D. Gimlin, “Cosmetic Surgery: Beauty as Commodity,” *Qualitative Sociology*, Vol.23, No.1, pp.77-98, 2000.
- [17] 김영아, *20~30대 여성의 미용성형 부작용 경험*,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18] http://www.kca.go.kr/brd/m_32/view.do?seq=1746&multi_itm_seq=0, cited 2015 April 1.
- [19]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nd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2007.
- [20]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1] 전병재,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07-130, 1974.
- [22] D. Henderson-King, “Henderson-King,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Body image*, Vol.2, No.2, pp.137-149, 2005.
- [23] 김은자,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 외모거부민감성, 신체변형격격정이 이십대의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24] 류인균, *여대생의 다이어트, 미용성형시술 형태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부, 2013.
- [25] 조현우, *일부 대학생들의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태도와 행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6] 오지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873-884, 2014.
- [27] 조영권,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방사선사 이미지, 전공만족이 대학생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283-293, 2014.
- [28] 이관, 임현술, 장경순, “대학 신입생이 외모에 대한 인식 및 미용성형수술 실태,” *동국의학*, 제13권, 제1호, pp.27-36, 2006.
- [29] 정연선, *남자대학생의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주관성*,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저 자 소 개

김 영 아(Young A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6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2015년 8월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 여성건강간호학, 간호정책학, 질적 연구

채 덕 희(Duckhee Chae)

정회원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석사)
- 2010년 7월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간호학 석사 후 과정)
- 2013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 문화적 역량, 산업 간호, 건강증진, 측정 도구

김 현 레(Hyunlye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06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석사)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 간호, 대학생, 간호교육, 의사소통